



# 일, 경험, 배움 그리고 업그레이드

한영미/하자센터 기획부 하자팀장 [www.haja.net](http://www.haja.net)

“우리의 삶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하자”  
내가 일하고 있는 하자센터(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모토다.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문화작업장이라고 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말 그대로 “새로운” 개념의 실험을 감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전시기획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미술 실기를 전공했지만 기획하는 일 쪽이 더 적성에 맞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졸업 후 기획과 관계되는 일이나 혹은 허드렛일 일지라도 모두 경험이 될거라 여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녔다. 그러던 중 하자센터에 오게 되었고 나는 하자센터의 판돌이(판을 돌리고 만들면서 10대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가 되었다.

하자센터를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겐 행운이었다. 난생처음 10대를 만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세대간의 차이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과 의미가 보다 선명해지고 그것이 적절한 속도감과 의미를 가지면서 나도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유형테스트에서 나는 성공형이라고 나온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결과를 중시하고 목표에 매진하며 성공하지 않으면 못견디는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을 성공시켜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은 중요한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런 유형의 성격이라는 것에 많이 조심스럽다. 과정에 대한 돌이김과 조절의 필요성 등을 쉽게 간

과해 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따금 workaholic처럼 일하는 나를 돌아 볼 때 섬뜩할 때가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지나쳐 버리고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 가능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더 희망적인 것은 나 스스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먼저 갖게 되었다는 사실과 이런 나를 모니터링하여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해 줄 동료들과 10대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한 10대로부터 얻은 교훈이고 자국이였다. 분명한 실체는 없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계기였다. 나는 이곳에서 10대들과 똑같이 일하고 경험하고 배우며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다.

하자센터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전시기획도 해보고 크고 작은 공연과 이벤트도 해봤다. 현재는 명함회사라는 10대 창업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창업이라는 것, 그것도 10대와 함께 할 창업이라는 것은 내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새로움의 시도이기도 하다.

하자에서의 일, 그리고 나의 일은 해볼수록 설레고 매력적이다. 쉬고 싶지 않은 일, 멈출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약간의 불안과 씁없는 긴장감을 주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경험들을 통하여 자기기획력을 가진 풍요로운 기획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 되었다. PPFK